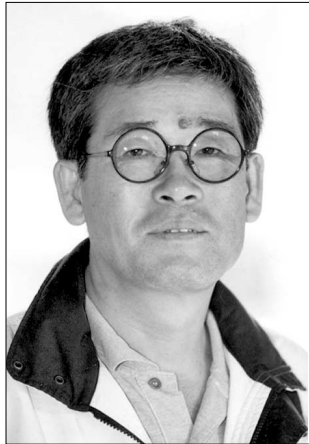


# “편리함 속에 잃어버린 자연의 목소리”

### ■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 ‘생명산필’ 출간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의 뜻을 남에게 전달하고 있다. 동물들은 소리와 몸짓으로 자기의 뜻을 표현하고, 식물들은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로 자기를 드러낸다. 그것들과의 잠깐의 만남-자연과의 지친명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찾아낸 이야기를 가까스로 찾아낸 ‘나의 일’이 되었다.”



단위가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도 사람들과의 속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많이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기계의 속도로 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순하고 느렸던 사람의 속도가 새삼스럽습니다.”

생태운동가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초등학교에서 국어선생님으로 교편을 잡았던 그는 안성 칠장사에서 출가를 했다. 아이들과 칠장사로 소풍갔다가 접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오묘한 진리. 교사이면서 소설가였던 그가 지녔던 논리체계를 뒤흔들어버린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산중생활은 그가 생태운동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사찰생활의 면면은 인간은 그저 자연의 일부분임을 가르쳐주었다.

20여년 생태운동을 펼쳐고 있는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사진). 본지에 ‘108사찰 생태여행’을 연재중인 김 소장은 선재동자가 53선 지식을 찾아가듯 자동차도 없이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생태여행을 다니며 발견한 이야기를 모아 책으로 펴냈다. 7월 1일 발간한 <생명산필(生命散筆)>이 그 책이다. 그는 자연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편리함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여행길에 만난 생명이야기

“완혈열차에서 내린 충청도 어느 소읍. 시골은 어디나 버스가 뜸합니다. 바다마을까지 삼십리 길이 안타깝게도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포장도로는 자동차와 같은 기계의 길일 뿐, 사람의 길로 만들게 아닙니다. 포장도로는 비포장 흙길보다 견디는 힘이 듭니다. 발은 본래부터 비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략) 한쪽이 편리하면 어느 한쪽은 불편해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 것을...”

<생명산필>은 생태명상록이다. 한숨에 읽어내릴 만큼 짧은 글. 122편이 담겼다. 오랜 생태여행에서 기쁘고 슬프고 안타까웠던 순간들을 담담히, 숨김없이 <생명산필>에 담았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자연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경종을 울린다. “인간의 눈에는 불구가 있을 지 모르나, 자연의 경계에 들어서면 불구가 없습니다. 휘어지고 휘틀린 그대로가 자연입니다. 모두가 불이(不二)요, 원융회통(圓融會通)입니다.”

“이 지구의 모든 존재들은 저들만의 시간

은 나무를 해 온 그에게 그 석주 스님은 절대로 찍은 나무를 태우지 말라고 당부했다. 찍은 나무가 더 잘라고 좋지 않느냐는 항변에 석주 스님은 찍은 나무를 부러뜨려 그 속의 벌레를 보여주었다. “이 나무를 태우면 화랑 지옥이 따로 있겠느냐.”

세상 속으로 나온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아무도 하지 못한 생태운동을 시작했다. 굳이 불교를 말하지 않아도 그의 생태운동은 불교에 기반한 것이었다.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7월 1일 안성도 피안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박봉영 기자

생명산필 김재일 지음 종이거울 1만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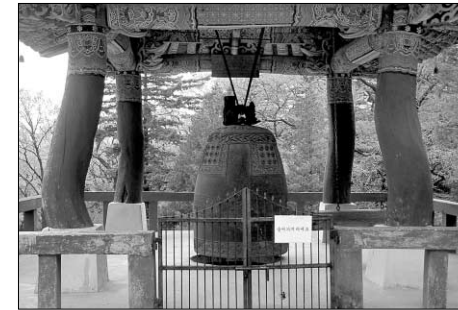


“마음이 열리면 이전에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연 속에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이미지들이 고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길 수만 있다면, 발길 닿는 모든 곳이 고미술품으로 변합니다”

15년동안 성천문화재단의 동서인문 고전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김홍근씨. 그가 최근 무심코 마주치는 풍경에서 ‘선화(禪畵)’ 발견방법을 제시하는 <선화>라는 책을 발간했다.

문화유적으로 스며 있는 ‘마음’을 읽으려는 저자의 지극한 시선에 맞춰진 이 책은 독자들을 차츰 선화 발견의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

또 ‘스님들이 수행을 목적으로 그리는 그림’ 또는 ‘마음 속의 수행의 경지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선화의 개념을 일상으로 가깝게 끌어올려 그 외연을 단순하고 편안하며, 넓어지게 하고



통나무 곡선을 살린 서산 개심사 범종각.

## 마음 열면 보이는 자연 속 숨은 선화

그는 국보나 문화재로 지정된 유명 사적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곳, 작지만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저자는질박한 한옥등 우리 건축물에 ‘자연 미학’의 극치가 담겨 있다며 감탄을 거듭한다.

특히 큰 소나무가 지붕 위를 뚫고 나와 서 있는 ‘송석경’과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서산 개심사 범종각은 곡선과 자연을 살리면서 건축물을 자기 위한 목적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선화를 발견하는 방법은? 저자는 “왜 만들었는지, 무슨 용도인지, 왜 여기다 배치했는지, 전체와는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여기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한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만든 사람의 마음이 비쳐면서 시공을 넘어 서로 ‘통하는’ 느낌이 온다.

<선화>는 세상이라는 텍스트에서 사물을 읽어내는 안목을 높이고, 풍경과의 짜릿한 교감에 이르기까지 미처 체감하지 못했던 문화유적답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인이 김홍근은 다채 유영모의 사상연구도인 ‘다섯사상연구회’에서 10여 년간 총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참선일기> <보르헤스 문학 전기>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할라 리라> <현재를 찾아서> <후의 자식들>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우리나라(남한지역)에는 370여 구의 미륵이 있다. 가히 ‘미륵의 나라’라는 표현이 과장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미륵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에는 미륵상이 이렇게 많을까. 그것은 미륵신앙이 지속되지 못한 중국과 일본 불교와 달리 한국불교의 경우 유난히 정토신앙의 확산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미륵상의 조상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 다양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부처나 보살의 표현 기법은 대부분 일정한 양식을 띠고 있고 그러한 표현양식은 경전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야외에 서있는 돌미륵의 경우 아주 자유분방한 모습을 띠고 있어 그 도상의 근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않은 일이다. 이 책 <미륵의 나라>는 이렇듯 산모퉁이를 돌면 잠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산골짜기 바위 속

## 어찌 이리 다 다를까 돌미륵의 미소는?

에서 수줍게 미소 짓거나 혹은 마을 한 가운데에서 익살스럽게 왕망들 눈을 굴리는 돌미륵에 대한 기록을 읽고 있다.

특히 1981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정원기 능대학장을 역임한 최중래씨가 반평생에 걸친 미륵불 답사를 정리하여 해설과 함께 실은 대표작인 90여구의 돌미륵은 유난히 눈에 띈다. 또 미륵신앙의 사상적 연원을 알 수 있도록 관련 경전의 주요 내용을 실어줌으로써 미륵신앙의 본질을 물론 그 신앙의 주대상이 되어온 돌미륵의 다양함을 함께 엿볼 수 있도록 엮었다.

부록 ‘미륵을 찾아가는 길’은 이 책에 실린 90여 미륵불에 대한 각종 정보와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로망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 답사 여행의 길잡이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꾸며 놓고 있다.

김원우 기자

### 새로운 책

■ 불교의 무아론(한자경 지음, 이화여대출판부)= 불교의 중요한 개념인 무아론(無我論), 인무아(人無我), 법무아(法無我), 연기(緣起), 오온(五蘊), 윤회(輪廻), 해탈(解脫)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책. 저자는 일체가 상대적임을 인식할 때 그 의식의 시점이 절대적 시점이고 그 절대적 시점이 대의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인식도 그 진리성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아와 연기를 통해 현상 세계의 상대성을 논하면서 서도 현실 인식의 바탕인 공과 일심을 놓지 않는다.

오히려 보인 세계의 상대성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보는 눈의 자각을 위한 것이며, 불교의 모든 논의는 결국 마음의 공성(空性)에 대한 절대적인 깨달음, 자유, 해탈을 위한 도정임을 강조한다.

마음이 공으로 되는 순간엔 자아가 무아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역설을 이 책을 통해 해명하고 있다.

■ 달마선(박건주 지음, 운주사)= 달마선(능가선)은 곧 대승의 심의에 바탕한 정통승단이며 최상승승단으로 평가된다.

<능가경>에는 ‘교의를 올바르게 뚜렷이 이해하면 자신에서 성스러운 진리(지혜)를 깨닫는다’는 내용이 여러차례 나온 것을 보면 이를 뒷받침한다.

박건주씨(동국여경원 역경위원장) 해설한 이 책 <달마선>은 수행에 지침이 될 수 있고, 왜곡된 여러 사항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심과 무생법인’ ‘죽임의 가르침’ ‘점점과 둔법’ 등 달마선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조목별로 간추려서 그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 깨침의 철학(히사마츠 신이 지 지음, 들꽃누리)= 대개의 학문, 종교, 철학 등이 서양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이 책은 불교를 통해 ‘동양적인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다.

일본의 불교학자 히사마츠 신이지의 글들을 원연 스님이 편역한 <깨침의 철학>은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깨침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사찰 정신에 대해 얘기한다.

책의 내용은 ‘동양적 무’ ‘동양적으로 형이상적이 되는 것’ ‘법계 연기론’ ‘참 종교를 찾아서’ ‘불교 철학의 방법’ 등으로 되어 있다.

### yosiamun.com 추천도서

- 오체투지 작가의집, 한경희, 9000원
  -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 민족사, 나무불 스님, 6000원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장경각, 성철 스님, 4900원
  - 탁날한 스님의 아이마경 미토스, 티넛한 스님, 9800원
  - 진흙소가 뭉쳐를 곁어간다 불광출판부, 무비 스님, 9000원
- 도서주문 (02)2004-8220

##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경전!



삶의 지침서 <인생경>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롭게 창간 탄생되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인생경>! <인생경>을 접하는 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경>을 읽으면 운명이 바뀐다! 자녀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인생 지침서 <인생경>! 가정, 일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한 권씩 평생 지혜의 보감으로 대물림할 수 있는 책 <인생경>!

김기상 지음 / 704쪽 / 양장 / 4×6배판 변형 / 32,000원

- 동서고금 여러 성현들의 말씀 중 삶에 직결되는 말씀만 골라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21년 동안 평범한 인생의 언어로 풀어쓴 인생의 경전!
- 하루에 한 번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특정 종교나 사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5,457구절의 주옥같은 명언, 명구!
- 논술, 글쓰기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 겨레 고유의 베타머리 교육, 무릎 위 교육 부활 선언!

주문처 서울(본사) 02-373-8184, 010-2246-8184/중로 010-7143-8325/보문동 010-2241-3661/수색 010-5561-1071/남거좌 011-270-6356 서초 010-4232-8833/목동 010-2241-6151/동작 010-5500-6646/신림 016-781-5917/서울대 011-9711-1554/낙성대 011-9998-8832 안양 011-249-3499/인천 010-2415-7500/인천 019-362-2913/부천 010-6484-4944/부천(박세기) 011-736-4948/안산 011-9784-4432 대구 010-7323-9900/인덕원 011-227-2421/의왕 010-8008-2857/부산 010-8629-1839/울산 010-4200-5723 춘천 및 대리점 모집 문의 02-373-8184/010-2246-8184

도서출판 백교 전화 02-373-8184 / 팩스 02-302-4818 baikyo@dreamwiz.com / http://blog.naver.com/baikyo

##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소설 <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 주요수룩내용 ■ 공감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오 딸이 미쳐가고 있어오 의처증 이야기 바둑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인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 책속 부록 ■ **생일로 알수 있는 내용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정동(명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